

1Q21Re: 화학사업이 이끈 1분기 최대 실적

1Q21 Review: 1분기의 호실적 2분기에도 이어진다

2021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369억원(+16.5%, YoY)과 영업이익 91억원(+201.3%, YoY)을 시현하였다. 캠트로닉스의 1분기 실적 성장은 ① 중저가 스마트폰의 LCD→OLED 전환과 태블릿PC, 노트북의 OLED 채택에 따른 Rigid OLED 식각 수요 증가 ② 화학 원재료 가격 상승과 타이탄 공급으로 인한 케미칼 부문의 수혜가 주요했다. 특히 식각 사업은 HIAA 공정에 필요한 '폴리싱(연마) - HIAA(Hole 형성) - 식각(글래스)'의 전(全)공정을 담당하고 최근 태블릿, 노트북의 OLED 채택 확대에 따라 전방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 기대

캠트로닉스는 국내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 선두주자이다. 이미 판교, 세종, 서울, 제주도, 대구 등 주요 지자체의 C-ITS 구축 실증사업에 핵심 업체로 참여하며 탄탄한 트랙 레코드를 쌓아오고 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르노삼성, 지리자동차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ADAS 기술 전문업체 '비온드아이'를 인수하며 전장용 카메라 센서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V2X 통신과 전장 기술의 융합을 통한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판뉴딜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와 국도에 RSU 발주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캠트로닉스는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실증사업 레퍼런스를 지니고 있어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2021년 매출액 5,796억원, 영업이익 390억원 추정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5,796억원(+9.3%, YoY), 390억원(+76.5%, YoY)으로 전망한다. 2021년은 ① 노트북, 태블릿 등 OLED 채택 증가에 따른 식각 수요 증가 ② 화학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케미칼 사업부 실적호조 ③ 정부주도 V2X 인프라 건설 본격화를 통해 외형성장률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스몰캡_Report

Not Rated

| CP(5월13일): 25,6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951.77
52주 최고/최저(원)	33,600/11,950
시가총액(십억원)	381.1
시가총액비중(%)	0.10
발행주식수(천주)	14,858.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17.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1
18년 배당금(예상, 원)	0
18년 배당수익률(예상, %)	0.00
외국인지분율(%)	5.32
주요주주 지분율(%)	
김보균 외 10 인	28.6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7.2)	41.7	96.6
상대	(1.5)	24.9	42.8

Consensus Data

	2018	2019
매출액(십억원)		
영업이익(십억원)		
순이익(십억원)		
EPS(원)		
BPS(원)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십억원	246.1	292.8	337.4	403.5	501.8
영업이익	십억원	0.6	(10.3)	9.4	26.3	23.0
세전이익	십억원	(6.7)	(19.0)	1.7	19.7	17.4
순이익	십억원	(6.0)	(16.2)	1.1	16.2	13.6
EPS	원	(561)	(1,378)	78	1,160	933
증감율	%	적지	적지	폭전	1,387.18	(19.57)
PER	배	(14.94)	(4.11)	78.85	15.56	29.64
PBR	배	1.07	0.95	1.00	2.56	3.59
EV/EBITDA	배	12.94	28.08	7.94	8.65	9.29
ROE	%	(7.67)	(21.41)	1.40	18.50	13.44
BPS	원	7,831	5,997	6,169	7,059	7,701
DPS	원	0	0	0	300	300



기업분석팀 중소영주파트
Analyst 황성환
02-3771-3445
hsh0415@hanafn.com

2021년 내실 다지기 +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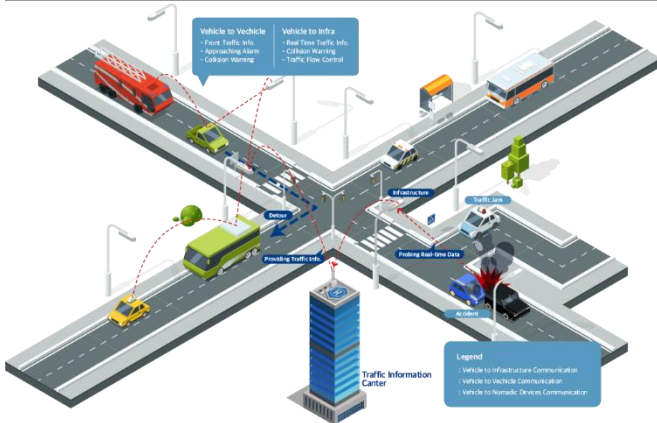
C-ITS 통신을 위한 WAVE, C-V2X
기술방식 모두 보유
하반기 삼성전자로부터 인수한 WiFi
사업부 매출 반영 예상

국내 주요 지자체 C-ITS 구축사업
핵심 업체로 참여
정부 주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정
책에 수혜 기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5,796억원(+9.3%, YoY), 390억원(+76.5%, YoY)으로 전망한다. 캠트로닉스는 2020년 매출액 5,330억원(+31.4%, YoY), 영업이익 221억원(-16.1%, YoY)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외 변수에도 탄탄한 기초 체력을 확인시켜주었다. 2021년은 캠트로닉스의 뿌리 사업인 케미칼과 식각 사업의 호조와 오랜기간 준비해온 자율주행 사업이 본격 개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인수한 WiFi 사업부 매출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한해 창립 이래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한다.

캠트로닉스는 국내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 선두주자로 2015년 국내 최초 WAVE 통신 선두업체 NXP반도체와 손잡고 공동으로 WAVE를 기반으로 한 V2X OBU(On Board Unit, 차량탑재용 통신모듈)를 개발했다. 그리고 C-V2X 선두업체인 퀄컴(Qualcom)칩과 이스라엘 오토톡스(Autotalks) 칩을 활용하여 C-V2X 자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OBU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WAVE 및 C-V2X에서 모두 동작되는 자체 듀얼 V2X 단말기도 개발완료 하였다. 한국판뉴딜의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에 따르면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핵심인 C-ITS 구축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고속도로와 국도에 RSU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캠트로닉스는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실증사업 레퍼런스를 지니고 있어 정부 주도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그림 1. 캠트로닉스 V2X 솔루션 서비스 컨셉



자료: 캠트로닉스, 하나금융투자

그림 2. 캠트로닉스 C-ITS 관련 주요 생산 제품



자료: 캠트로닉스, 하나금융투자

표1. 캠트로닉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F	3Q21F	4Q21F	18	19	20	21F
매출액	117.5	107.8	161.7	143.1	136.9	135.8	159.8	147.1	337.4	403.5	530.0	579.6
YoY(%)	37.7	26.6	24.9	38.1	16.5	26.0	(1.2)	2.8	15.2	19.6	31.4	9.3
전자사업	63.4	54.9	106.2	73.4	59.7	59.4	85.2	66.8	132.7	191.6	300.0	271.1
화학사업	54.1	50.8	55.5	69.7	77.2	76.4	74.6	80.3	204.7	211.0	230.1	308.5
영업이익	3.0	2.4	10.2	6.4	9.1	10.1	12.3	7.5	9.4	26.3	22.1	39.0
영업이익률	2.6	2.3	6.3	4.5	6.6	7.4	7.7	5.1	혹전	6.5	4.2	6.7
지배주주 순이익	0.4	0.9	8.2	7.5	7.0	6.6	8.9	5.2	1.1	16.6	17.0	27.9
순이익률	0.3	0.8	5.1	5.3	5.1	4.8	5.5	3.5	혹전	4.1	3.2	4.8

자료: 캠트로닉스, 하나금융투자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246.1	292.8	337.4	403.5	501.8
매출원가	224.8	279.1	302.6	334.6	421.7
매출총이익	21.3	13.7	34.8	68.9	80.1
판매비	20.7	24.0	25.3	42.5	57.1
영업이익	0.6	(10.3)	9.4	26.3	23.0
금융손익	(3.8)	1.1	(7.1)	(8.0)	(10.1)
종속/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기타영업외손익	(3.4)	(9.8)	(0.6)	1.3	4.5
세전이익	(6.7)	(19.0)	1.7	19.7	17.4
법인세	(0.8)	(2.9)	0.6	3.1	3.5
계속사업이익	(5.9)	(16.1)	1.1	16.6	14.0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5.9)	(16.1)	1.1	16.6	14.0
비배주주지분 순이익	0.1	0.1	0.1	0.4	0.4
지배주주순이익	(6.0)	(16.2)	1.1	16.2	13.6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8)	(16.7)	1.1	15.1	13.6
NOPAT	0.5	(8.7)	6.3	22.2	18.4
EBITDA	15.3	5.8	22.7	41.4	36.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7.34)	18.98	15.23	19.59	24.36
NOPAT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252.38	(17.12)
EBITDA증가율	26.45	(62.09)	291.38	82.38	(12.32)
영업이익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179.79	(12.55)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372.73	(16.05)
EPS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387.18	(19.57)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8.66	4.68	10.31	17.08	15.96
EBITDA이익률	6.22	1.98	6.73	10.26	7.23
영업이익률	0.24	(3.52)	2.79	6.52	4.58
계속사업이익률	(2.40)	(5.50)	0.33	4.11	2.79

투자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주당지표(원)					
EPS	(561)	(1,378)	78	1,160	933
BPS	7,831	5,997	6,169	7,059	7,701
CFPS	1,594	1,781	1,339	3,117	2,479
EBITDAPS	1,433	496	1,656	2,975	2,490
SPS	23,092	24,834	24,614	28,975	34,435
DPS	0	0	0	300	300
주가지표(배)					
PER	(14.94)	(4.11)	78.85	15.56	29.64
PBR	1.07	0.95	1.00	2.56	3.59
PCFR	5.26	3.18	4.59	5.79	11.15
EV/EBITDA	12.94	28.08	7.94	8.65	9.29
PSR	0.36	0.23	0.25	0.62	0.80
재무비율(%)					
ROE	(7.67)	(21.41)	1.40	18.50	13.44
ROA	(2.59)	(7.27)	0.47	6.15	4.49
ROIC	0.28	(5.13)	3.87	12.50	9.98
부채비율	192.41	193.70	194.06	195.99	185.39
순부채비율	144.43	124.17	129.67	92.95	72.10
이자보상배율(배)	0.16	(2.65)	1.81	4.57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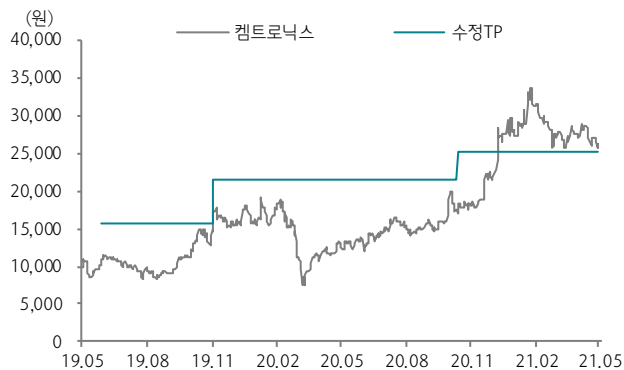
자료: 하나금융투자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동자산	94.1	96.1	110.0	137.7	167.9
금융자산	12.2	17.1	17.4	40.5	47.1
현금성자산	9.2	11.6	10.8	33.0	37.8
매출채권	34.6	37.9	44.7	47.7	59.3
재고자산	43.8	37.6	43.9	43.4	54.0
기타유동자산	3.5	3.5	4.0	6.1	7.5
비유동자산	132.3	124.6	121.6	156.4	143.3
투자자산	1.9	1.6	2.6	4.2	4.5
금융자산	1.9	1.6	2.6	4.2	4.5
유형자산	114.2	102.8	99.1	117.7	106.2
무형자산	10.8	8.2	8.6	20.0	18.3
기타비유동자산	5.4	12.0	11.3	14.5	14.3
자산총계	226.4	220.7	231.6	294.1	311.3
유동부채	107.3	120.6	131.5	146.9	152.5
금융부채	84.0	87.5	100.2	92.6	85.4
매입채무	12.1	23.1	23.2	27.7	34.5
기타유동부채	11.2	10.0	8.1	26.6	32.6
비유동부채	41.7	24.9	21.3	47.8	49.7
금융부채	40.0	22.9	19.3	40.3	40.3
기타비유동부채	1.7	2.0	2.0	7.5	9.4
부채총계	149.0	145.5	152.8	194.7	202.2
지배주주지분	77.0	74.6	78.2	96.5	105.8
자본금	5.1	6.8	6.9	7.3	7.3
자본잉여금	33.8	46.7	49.1	53.0	53.0
자본조정	(6.4)	(6.4)	(6.4)	(7.4)	(7.4)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2	3.7	4.1	4.2	4.2
이익잉여금	40.4	23.9	24.6	39.4	48.7
비지배주주지분	0.4	0.5	0.5	2.9	3.3
자본총계	77.4	75.1	78.7	99.4	109.1
순금융부채	111.8	93.3	102.1	92.4	78.6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영업활동 현금흐름	26.5	13.0	1.2	54.5	18.2
당기순이익	(5.9)	(16.1)	1.1	16.6	14.0
조정	2	3	1	2	1
감가상각비	14.7	16.1	13.3	15.1	13.2
외환거래손익	0.9	0.1	0.4	(0.8)	0.0
지분법손익	0.0	0.0	0.0	0.0	0.0
기타	(13.6)	(13.2)	(12.7)	(12.3)	(12.2)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12.3	(4.7)	(12.8)	17.4	(9.0)
투자활동 현금흐름	(19.3)	(16.2)	(8.4)	(46.1)	(2.0)
투자자산감소(증가)	0.8	0.2	(0.9)	(1.6)	(0.2)
자본증가(감소)	(17.3)	(11.2)	(8.3)	(29.3)	0.0
기타	(2.8)	(5.2)	0.8	(15.2)	(1.8)
재무활동 현금흐름	(10.2)	6.1	5.9	13.8	(11.4)
금융부채증가(감소)	(8.5)	(13.6)	9.1	13.4	(7.2)
자본증가(감소)	(0.0)	14.3	2.5	4.4	0.0
기타재무활동	(1.7)	5.4	(5.7)	(3.8)	0.0
배당지급	0.0	0.0	0.0	(0.2)	(4.2)
현금의 증감	(3.0)	2.5	(0.9)	22.3	4.7
Unlevered CFO	17.0	21.0	18.4	43.4	36.1
Free Cash Flow	8.7	1.4	(7.9)	23.8	18.2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캠트로닉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1.5.13	Not Rated	-	-	-
20.10.26	BUY	25,200	2.11%	33.33%
19.11.14	BUY	21,400	-31.11%	-6.54%
19.6.10	BUY	15,800	-31.84%	-5.70%
19.5.15	Not Rated	-	-	-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06%	4.94%	0.00%	100%

* 기준일: 2021년 05월 10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황성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5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황성환)는 2021년 5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